

# KIA 최형우 효과

타자 “배울 것 많다...타선 폭발할 것”  
투수 “어려웠던 상대...부담 줄었다”

## 모교 전주교·양준혁 야구재단 등에 2억7천만원 기부도

KIA 외야수 최형우가 '모범 FA'를 꿈꾼다.

최형우는 지난해 11월 24일 계약금 40억원, 연봉 15억원 등 총 100억원(계약기간 4년)에 FA 계약을 맺고 KIA 유니폼을 입었다. 국내 프로야구 사상 첫 100억이라는 거금과 유망주 강간을 내주고 영입한 만큼 최형우에게 거는 기대감은 높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역할이 막중한 최형우는 일단 기부를 통해 'FA 대어'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첫 행보는 모교 전주진북초 방문이었다. 모교로 걸음을 한 최형우는 2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기부한 데 이어 역시 모교인 전주교에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그리고 '양준혁 야구재단'에 유소년 야구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양준혁 야구재단(이하 재단)은 2일 '최형우의 기부금은 장학생 후원 및 초등학생 야구 캠프, 전국 초등학교 대회 개최 등 유소년 야구 선수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단은 아마추어 선수 20명을 '최형우 장학생'으로 선발해 1년간 200만원 상당의 야구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형우는 시즌 중 챔피언스필드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직접 만나 장학금을 전달한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초등학생 150여 명을 초청해 '최형우 야구 캠프'를 열고 유소년 야구 선수들과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

최형우가 후원한 기금을 바탕으로 유소년 야구 발전과 유망주 발굴을 위한 '최형우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칭)'도 개최된다.

최형우는 “그동안 많은 분께 받은 사랑

에 힘입어 FA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기에 그 사람에게 보답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작은 힘이지만 유소년 야구 발전에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비시즌에 '모범 FA'로서의 행보를 한 최형우는 그라운드에서도 'FA 대어'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최형우는 이미 “100억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내 할 것을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3할·30홈런·100타점이 최소 목표다”며 2017시즌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자신감 넘치는 최형우는 팀 적응도 이미 끝났다. 먼저 후배들에게 말을 건네고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하면서 팀에 녹아들었다. 최형우를 보는 동료들의 눈빛도 특별하다.

폭발적인 타선이 구축됐다는 것이 KIA 타자들의 이야기다. 상대의 마운드 운영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KIA는 그동안 김주찬, 나지완, 이범호, 브렛 필 등 우타자로 중심타선을 운영해왔다. 반대로 최형우는 좌타자 일색의 삼성에서 4번 타자를 했다. 우타 라인에 좌타자 최형우가 들어오면서 상대 벤치의 머리는 더 복잡해지게 됐다.

이범호는 “좌타자인 (좌)회심이 형이 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일 것 같다. 4번 타자가 등직하게 버티고 있는 것과 아닌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최형우의 가세를 반겼고, 최형우도 “삼성에서는 (좌타자 라인이라) 상대 팀에서 왼손 투수가 나오면 계속 나왔는데 그때와 다르게 상대가 작전을 바꿀 것 같다. 그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달라진 환경과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타자들만 최형우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17시즌 홈경기 시즌권을 판매한다.



KIA 최형우(오른쪽)가 '양준혁 야구재단'에 유소년 야구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한 뒤 양준혁 이사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 시즌 최형우는 KIA와의 16경기에서 0.390(59타수 23안타)의 타율을 기록했다. '에이스' 헤테에게도 13타수 5안타(타율 0.385)의 성적을 내는 등 까다로운 난적이 동료가 된만큼 투수들도 최형우의 가세가

반갑다. 기부를 통해 KIA에서의 첫 걸음을 떤 최형우가 그라운드에서도 실력 발휘를 하며 '모범 FA'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시즌권 할인 판매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17시즌 홈경기 시즌권을 판매한다.

시즌권은 KBO 정규리그 홈구장 72경기를 기준으로 하며 테이블석과 지정석에 한해, 정가가 대비 24.5~33% 할인이 적용된다.

중앙테이블 2인석은 4백만원, 3인석은

5백50만원에 각각 판매한다. 메이저리그 식 프리미엄 의자가 설치되어 편안한 관람이 가능한 챔피언석은 1인 기준 2백20만원이다. 내야지정석인 K9존은 70만원으로 책정됐다. K7존은 58만원, K5존의 시즌권 가격은 50만원이다.

시즌권은 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070-8191-7890, 7899)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힘겨운 ML 재도전...준비 끝”

## 미네소타 박병호 출국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가 2017 시즌 명에 회복을 다짐하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국프로야구 홈런왕” 출신 박병호는 팀 스프링캠프 시작에 앞서 개인 훈련을 하기 위해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진>

박병호는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비장하게 2017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그는 “작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전했는데,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아들였다”며 “아무래도 (투수들의) 직구 구속이 우리나라 선수보다 빨라서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 삼진도 많았던 거 같다”고 돌아봤다.

박병호는 “올해는 작년보다 내 입지가 좁아진 것 같다”며 “같은 도전이지만, 올해는 힘겨운 도전이 될 것 같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쟁자인 케니스 바르가스, 단장 교체에 언급했다.

박병호는 “(나를 영입한) 단장이 바뀐 것이 영향을 있을 수 있고, 나를 대신해 올라와서 된 바르가스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서 경쟁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병호는 2016시즌을 앞두고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시즌 초반 연착륙하며 한국산 거포의 명성을 떨치는 듯했지만, 결국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 공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진에 빠졌다. 6월부터는 오른손목 통증이 겹쳤고 결국 7월 2일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메이저리그 성적은 62경기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홈런, 24타점이다. 이후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31경기에 나와 타율 0.224(116타수 26안타), 10홈런, 19타점을 기록했다.

박병호는 8월 25일 오른손 중지 수술을 받아 시즌을 마감했다.

그는 “작년에 내가 변명할 거 딱 하나가 부상이었는데, 지금은 통증도 전혀 없고 몸 상태가 괜찮다”며 “(일찍 시즌을 접어) 몸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의 강도도 높였다”고 전했다.

박병호는 “내가 힘겨운 도전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도전할 준비는 돼 있다”며 “스프링 트레이닝 때부터 죽기 살기로 해서 1루수든 지명타자든 주전으로 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박성현, 23일 혼다 LPGA 초청 못받아

### 향후 일정 혼선·타이틀 스폰서 계약 난항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신인 왕 후보 '0순위' 박성현(23)의 발돋움이 꼬이고 있다.

박성현은 오는 23일부터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LPGA투어 혼다 LPGA 타이일랜드에서 LPGA투어 정규 멤버로 데뷔전을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2일 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정된 출전 선수 명단에 박성현의 이름이 없다. 이 대회는 작년 삼금순위 58위 이내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인비테이션형 형식이라 신인 신분인 박성현은 예초이 대회에 자격으로 출전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혼다 LPGA 타이일랜드 출전이 무산되면서 단 한 차례 대회를 치르려고 미국 플로리다주 훈련 캠프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는 일정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대회 주최 측 고위 인사가 구두로 인질을 줬던데다 뜨거운 관심을 받은 특급 선수라는 점에서 출전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게다가 박성현은 현재 세계랭킹 10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대회 주최 측은

초청 선수 10명 가운데 박성현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회 주최 측은 박성현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혼다 LPGA 타이일랜드에 맞춰 훈련해 온 박성현 캠프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박성현은 예초 혼다 LPGA 타이일랜드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HSBC 여자 챔피언스 등 동남아시아에서 2개 대회를 치르고 미국 본토 대회에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혼다 LPGA 타이일랜드 출전이 무산되면서 단 한 차례 대회를 치르려고 미국 플로리다주 훈련 캠프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는 일정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타이틀 스폰서 계약도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LG전자를 서브 스폰서로 영입하면서 서브 스폰서는 4개 기업이나 확보했지만 정자 모자 정병에 로고를 달 후원사는 붙잡지 못했다. <연합뉴스>

## ‘45세 복서’ 최용수, 5일 24세 필리핀 선수와 격돌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최용수(45·극동서부)는 13년 만의 복귀전에서 승리한 뒤 “이벤트성으로 한 게임 하려고 복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의 말 그 대로였다. 링의 주인으로 돌아온 최용수가 10개월만에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전 세계권투협회(WBA) 슈퍼 페더급(58.97kg급) 챔피언인 최용수는 오는 5일 필리핀서울힐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필리핀의 신예 벨스 타남파이(24)와 세계복싱평의회(WBC) 유라시아(EPBC) 실버타이틀 매치를 치른다.

최용수는 지난해 4월 16일 복귀전인 나카노 가스야(일본)와 라이트급(61.23kg) 경기에서 8라운드 레프리 스톱

TKO승을 거뒀다. 프로복싱에서 은퇴한 지 13년 만에, 잠시 외도했던 격투기를 포함해도 9년 만의 복귀전에서 최용수는 많은 복싱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EPBC는 WBC 산하 지역 기구로 유라시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실버챔피언은 준챔피언의 자격을 가진다. 복귀 목표로 세계 챔피언을 내건 최용수는 EPBC 실버챔피언을 획득, 이를 발판으로 타이틀까지 올라간다는 계획이다.

최용수와 타남파이는 경기 전날인 4일 오후 2시 필리핀서울힐트호텔에서 열리는 WBC 유라시아 실버타이틀매치 조인식과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 “경기 스타일 바꿔 나이·공백 이기고 우승...나도 해내고 싶다”

‘골프 황제’가 ‘테니스 황제’의 재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타이거 우즈(42·미국)는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유러프로골프 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페더러는 정말 오랜 기간 메이저 대회에서 정상을 지켰고, 좀처럼 하기 힘든 그 나이에도 우승했다”고 평가했다.

로저 페더러(36·스위스)는 지난달 끝난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에서 우승했다. 2012

년 월드컵 이후 4년 6개월 만에 메이저 우승인 데다 지난 시즌 하반기에 무릎 부상 때문에 코트를 떠났다가 복귀전에서 곧바로 정상에 올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우즈는 “페더러는 지금도 조코비치, 나달, 머리와 경쟁을 할 만큼 압도적인 기량을 오래 유지하고 있는 선수”라며 경의를 표했다.

우즈는 2008년 US오픈 이후 메이저 대회 우승 소식이 없다. 우즈 역시 허리 부상 등으로 인해 지난 시즌 공식 대회에 한 번

도 나오지 못했다. 2015년 8월 윈덤 챔피언십 이후 지난달 말에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을 통해 공식 복귀전을 치렀으나 컷 탈락했다.

평소 페더러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알려진 우즈는 “페더러의 나이에 공백기를 가진 뒤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기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데 페더러는 그것을 잘 해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나도 그런 점은 마찬가지”라며

“요즘 친구들처럼 340야드를 날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40을 넘긴 나이를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주 대회에서 터스틴 존슨이 335야드를 날리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니 윌릿, 매슈 피츠패트릭(이상 잉글랜드)과 함께 이 대회 1·2라운드를 치르는 우즈는 “우선 (허리) 통증이 없는 것이 우선”이라며 “스윙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떠나 아프지 않고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